

‘장바구니 물가 낮춰라’... 유통업체 할인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여전 정부,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회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품목 등 늘려 상품권 환급·농축산물 가격 인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범정부 차원 할인 정책을 유지·확대하면서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총력에 나선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35(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90(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올랐다.

3%대 고물가 기조를 견인한 품목으로는 과일, 채소 등 농축수산물로 광주 신선식품지수는 140.30으로 전년동월대비 15.5% 상승했다. 이중 사과, 귤 등 신선과실이 전년비 39.3% 대폭 올랐다.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 82.7%, 귤 51.2%, 토마토 16.4%, 배추 19.5%, 껌 32.1% 비싸졌다.

지난달 전남지역 신선식품지수는 136.44로 전년동월대비 18.2%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신선채소는 10.7%, 신선과일 42.4% 올랐다.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 71.0%, 귤 76.7%, 파 24.4%, 배추 14.3% 비싸졌다.

매달 가파르게 상승하는 농축수산물 물가에 정부는 이달에도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3일 한훈 차관 주재로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렸으며 지원단가도 확대했다. 또 3월 말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와 농협·영농법인 등 농산물 납품 업체에서 중소

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한다. 또 이달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할인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를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산물상품권을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과일 직수입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

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해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만3000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한우, 한돈 등 축산물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지난달 18일부터 투입 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금호타이어, 독일 아우토빌트 성능 테스트서 호평

SUV 기술력 우수성 입증

금호타이어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 알라드(AutoBild Allad)에서 실시한 SUV 여름용(Summer) 타이어 부문 테스트에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인 종합 4위(Good 등급)를 차지했다.

아우토빌트 알라드는 아우토빌트의 SUV 전문 자매지로, 4륜 구동 차량에 특화된 SUV 차량에 관심이 높은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및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잡지인 ‘아우토빌트’와 동일하게 제품 성능 테스트 결과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차량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아우토빌트 알라드는 유럽 지역에서 판매 중인 주요 브랜드의 SUV 여름용 11개 제품(규격 235/55R19)을 대상으로 젓은/마른 노면 등의 타이어 접지력, 제동거리 및 주행 안정성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성능을 시험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PS71 suv’가 노면을 가리지 않는 안전한 핸들링, 짧은 제동거리 등 호평을 받으며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ECSTA) 브랜드의 대표 모델 엑스타 PS71은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로 마른노면 및 젓은노면 주

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에 최적화 개발된 제품이다.

‘엑스타 PS71 suv’는 기존 엑스타 PS71 핵심 기술에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 보강 설계, 접지면적을 극대화,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향상된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또한, 패턴에 인-아웃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해 도로상황과 무관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조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엑스타 PS71은 PCR 규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SUV 규격까지 폭넓은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주요 EV 차종까지 대응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산채나물의 왕, 봄 ‘두릅’ 맛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는 씹실한 맛과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 봄철 별미 식재료인 두릅을 선보인다. 봄 제철 음식으로 손꼽히는 두릅은 단백질과 비타민C가 다량 함유돼 있고 칼슘 등 섬유소질 함량이 높아 춘곤증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광주신세계는 두릅뿐만 아니라 달래, 냉이, 미나리 등 봄철 식재료도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한국은행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결정 모의 체험 기회가 주어지는 ‘2024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올해 21회째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입상팀에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국 결선 금상팀엔 장학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경시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심은 서면 방식의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며 지역 예선과 전국 결선은 대면 방식의

발표·질의응답 형식으로 치러진다.

예심은 팀별로 제출한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 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

지역 예선은 팀별로 ‘7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15분 내에서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15분 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입상팀을 가린다.

대망의 결선대회는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15분 내에서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20분 내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금상·은상·동상·장려상 입상팀을 선정한

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예선은 오는 7월17~18일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리며 전국 결선은 8월9일 치러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한국은행 누리집(bok.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예심자료 제출 기간은 내달 20~22일이며, 예심 결과 발표는 6월 13~14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누리집 또는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649, 47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DJ센터 ‘광주 기프트숍’ 새단장

공예문화상품 전시 판매

지역 장인들의 멋과 솜씨가 어우러진 문화상품을 한눈에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전시판매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있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광주 기프트숍’이 새단장을 마치고 오픈했다. 광주 기프트숍은 광주시가 지원하는 수제공방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 공예문화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마

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한 것이다.

기프트숍에는 도자, 섬유, 금속공예, 목공예, 생활공예 상품 등 지역 공예인들의 멋과 솜씨가 어우러진 다양한 가격대의 문화상품, 생활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문화상품에 대한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 수제공방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억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보유하느냐 매도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보유와 매도를 넘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1억원 이하일 때 분할매수 하는 것도 두려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트코인 상승의 엔진 역할을 했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투자

금 유입이 아직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형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들 대형 금융기관들은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자산을 편입시키는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

작하면 비트코인은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홍콩에서 2·3분기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의 홍콩 인수 이후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한때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로 런던, 뉴욕 다음 가는 금융의 중심지였다. 비트코인에 적대적이었던 중국은 1국 2체제를 구실로 슬그머니 홍콩의 현물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ETF 승인을 방관하고 미국으로의 돈 흐름을 막아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의 현물 ETF의 승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에도움이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올해 미국 연준이 2·3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인하는 모든 자산에 큰 호재다. 그중

에서도 비트코인은 부동산, 증시의 상승분을 초과했었다.

여기에 올해는 4년마다 맞이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4월18~21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변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굳어간다면 이 희귀한 자산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다시는 살 수 없는 자산이 될지 모른다.